

눈 없는 겨울...2월엔 함박눈 볼 수 있을까

광주 1년 이상 적설량 '0'
오늘 반짝추위 함께 눈·비 예보
미세먼지에 신종코로나 공포
시민들 극심한 스트레스 호소
날씨·기온 체크 컨디션 조절을

인 탓에 하얀 눈을 기다리는 시민이 많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해 연말 발표한 '최근(19년 12월) 겨울 눈이 적었던 원인과 향후 전망'을 통해 지난 1월 하순부터 눈이 내리는 날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지만, 결국 기다리던 눈은 끝내 내리지 않았다. 이상고온 현상 때문에 '눈' 대신 비만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은 3일부터 기온이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해 7일까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특히 3일에는 오전만 때 눈 또는 비가 내려 다음날 오후께나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전남지역 예상 적설량은 1cm내외 강수량은 5mm미만이다. 3일 광주·전남의 대부분 지역에선 아침 최저기

온이 영하권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빙판길에 따른 출근길 혼잡도 예상된다. 이날 광주지역에 눈이 내려 쌓인다면 지난해 1월 이후 1년 만에 적설량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광주지역은 지난해 1월 31일 3.8cm의 눈이 쌓인 이후 드문 드문 약한 눈발만 날리면서 1년이 넘도록 적설량 0cm를 기록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다만 "3일 아침기온에 따라 예보된 눈이 비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면서 "또 눈이 내린다고 해도 진눈깨비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올 2월의 경우 지난달과 달리 찬 대륙고기압이 주기적으로 내려와 쌀쌀한 날씨와 포근한 날씨가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는 기상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민들은 겨울시즌 들어 장기간 눈 없는

따뜻한 겨울이 이어지고,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막히는 도로, 미세먼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등 각종 감염증 공포까지 겪으면서 극심한 생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초등생 자녀를 둔 김준영(43)씨는 "아이들 소원이 눈사람 만들기인데 1년이 넘도록 쌓인 눈이 없다 보니 눈사람은커녕 문을 못 쳐보지도 못했다"며 "최근엔 겨울 휴가를 내 강원도에 있는 한 스키장을 다녀왔는데, 새하얀 설경을 보니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모두 사라진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한 보건전문가는 "날씨는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날씨 및 기온, 습도, 기압을 미리 체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봄 재촉하는 홍매화 활짝
입춘을 이틀 앞둔 2일 광주 북구 중외공원에서 붉게 핀 홍매화에 시선을 빼앗긴 행인이 휴대폰에 매화꽃을 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출범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6·25전쟁 기념사업 관련 정책 심의·의결 기구인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 31일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1차 회의를 열고 운영계획·세칙과 사업종합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추진위는 지난해 제정된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방향 및 종합계획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장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위원으로는 정부 위원 14명과 민간 위원 15명 등 총 31명(당연직 15, 위촉직 16)으로 구성된다. 추진위는 이날 1차 회의를 갖고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사업종합계획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추진위는 앞으로 정부 기념식과 참전국 현지위문, 전자사 유해봉환식 등 감사행사를 담당하는 '기억' 분과, 문화행사로 국민 화합의 장 마련하는 '함께' 분과, 국제 학술회의와 참전국 보존부 장관회의 등을 기획하는 '평화'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눠 활동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고법원장 황병하... 고위법관 26명 인사

대법원이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에 황병하(57·사법연수원 15기·사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광주가정법원장에는 이태수(58·22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전주지방법원장에는 이재영(56·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전보했다. 최상열 광주고법원장은 희망에 따라 법관 인사위원회에서 '일로법관'으로 지명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대법원은 "오는 13일자로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26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황병하 신임 광주고법원장은 서울출신으로, 서울우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서산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고향이 전북 정읍인 이태수 광주가정법원장은 광주고와 서울대학교 의과학과 등을 졸업했다. 이재영 전주지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용문고, 고려대학교를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인사를 단행했다"며 "앞서 2012년 도입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현직 법원장 5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는 등 법관 인사의 공정성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1 **달뜨기** 12:33
해질 18:02 **달질** 01:39

빙판길 주의
고기압 영향으로 비 또는 눈 오는 곳 있겠다.

광주	비/눈온후	-1/6	보성	비/눈온후	-3/6
목포	비/눈온후	1/5	순천	흐림	1/7
여수	비/눈온후	3/7	영광	비/눈온후	0/5
나주	비/눈온후	-3/7	진도	비/눈온후	2/7
완도	흐림	2/8	전주	비/눈온후	1/5
구례	흐림	-1/7	군산	비/눈온후	0/5
강진	흐림	-1/7	남원	비/눈온후	-3/5
해남	흐림	-2/7	흑산도	비/눈온후	4/6
장성	비/눈온후	-2/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면바다(북)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면바다(남)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남해서부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면바다(서)	북서~북	1.0~1.5	북서~북	1.0~2.0
면바다(동)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생활지수

눈	높음
감기	높음
뇌졸중	보통
미세먼지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0:57	08:17
	13:35	20:22
여수	09:12	03:23
	22:03	15:20

◇주간 날씨

4(화)	5(수)	6(목)	7(금)	8(토)	9(일)	10(월)
☁	☀	☁	☁	☀	☀	☀
-4/8	-4/1	-6/4	-4/7	0/8	0/8	0/9

신입·편입·복학생 3월 10일까지 국가장학금 신청

올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2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0일 오후 6시까지다. 대상자는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으로,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의 2차 신청은 재학 중 2회까지만 허용되고, 구제신청서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재단 스마트폰 앱에서 24시간 내내 신청할 수 있다.

며, 신청 후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3월 12일 이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1~3구간 학생의 경우 C학점을 최대 2회까지만 허용한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재학생의 첫 학기거나 장애 학생인 경우에는 성적 기준이 없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대부업체 채권추심 위한 '편법 고소' 제동

검찰이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대부업체들이 편법으로 고소를 하면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대부업체로부터 접수된 채무자 고소 사건의 경우 명백한 범죄 정황이 없을 경우 각하 처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대부업체들이 채무자들과 연락이 안되거나 제때 돈을 상환받지 못

할 경우 사기나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대부업체들이 고소를 남발하면서 단순 채무자가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2018년 기준 주요 대부업체가 고소한 사건은 1만 1800여건에 달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